



## 등반활동 “GO! UP! 활기찬 우리들의 발걸음”

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가을 하늘 아래, 나래에서는 인천 산곡동에 위치한 장수산으로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 등반활동을 진행하며 높고 험한 산행길이라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즐거운 추억을 쌓고 돌아왔기에 이번 활동도 몹시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다 함께 모여 앉아 빵과 음료를 먹으며 진행 될 등반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장과 조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며 등반을 위해 힘차게 센터를 나섰습니다. 짝꿍의 손을 잡고 안전에 유의하며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 버스를 탑승 후 인천 나비공원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탄하고 완만한 길로 이어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해 모두들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갈림길까지 등산을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과자와 음료들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래고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시 출발하며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 뚫는 이용자분들의 발걸음이 활기차고 씩씩했기에 모두들 힘을 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파른 길로 매우 두려워하였지만 옆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며 안전하게 모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산을 하고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원적산 공원으로 다 함께 이동해 산책도 즐기고 짝꿍과 함께 다정하게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시원한 음료도 마신 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등반활동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맘을 식혀주고 나래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해 더욱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용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손끝에서 느끼고 이를 통해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내딛는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